

남원글로벌캠퍼스 본궤도 올랐다

전북대, 기재부·교육부·남원시와 국·공유재산 교환 4자 협약 체결... 내년 외국인 캠퍼스 개교 박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폐교된 남원 서남대 부지를 재생시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조성하는 남원글로벌캠퍼스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가 구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대 글로벌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내년부터 운영되는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개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시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남대 부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의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러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및 교육부와 전북대, 남원시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번에 부지교환을 위한 4자 협약이 성사됐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 부지교환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원시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전북대학교가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남원시 등과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최경식 남원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캠퍼스가 대학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혁신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북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게 해 대학-지역 상생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남원시는 캠퍼스 조성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번 협약은 폐교가 혁신을 통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변화하는 첫 출발

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남원글로벌캠퍼스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2025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가운데, 필리핀 카비테주 디지털 분야 선도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 배우러 왔어요”

필리핀 카비테주 디지털 분야 선도교원들 전북교육청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연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2025 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카비테주 디지털 분야 선도교원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필리핀 교원의 AI 디지털 수업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 필리핀 간 교육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필리핀 교원들은 △AI·로봇 기반 교수학습 체험 △스마트 교실 활용 수업 △Chat GPT 등 최신 에듀테크 교육을 통

해 한국의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 프로그램 참여, 전주한옥마을 탐방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연수는 양국 교원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7~28일 전주비전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오는 27~28일 양일 간 내내관에서 '제20회 총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 협회와 공동 주최한다.

품새 경기는 27일 △1부 개인품새 △2부 개인품새 △3인조 단체품새 △복식품새 △태권체조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겨루기는 28일 △초등부 저학년 △남녀 초등부 중학년 △남녀 초등부 고학년 △남녀 중등부 △남녀 고등부 등 9개 부문으로 구분해 치러진다.

개회식은 27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창설된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발차기와 대체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美 주요 대학·방산기업과 미래 협력 다졌다

전북대, 퍼듀대·조지아공대와 공동학위·연구협력 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국 주요 대학·방산기업과의 협력을 다졌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과 강은호·장원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등 대표단은 최근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와 조지아공과대학교(Georgia Tech), 보잉사(Boeing), 그리고 전라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미래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퍼듀대학교와 조지아공대를 찾아 첨단방산 및 Physical AI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퍼듀대 방문에서는 부총장 2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 교수진·학생 교류, 국제 공동학위 과정 개설, 연구협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지 한인 교수회 및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보잉사 방문에서는 전북대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보잉은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와 장학금 지원 제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일행이 최근 미국 퍼듀대학교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도입 등을 통해 상호 인력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전라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2025 DAPA-CSIS Conference)'에 참여해 전북대의 글로벌 비전과 지향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과 연구 교류 확대, Physical AI 및 융합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방문은 전북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방산 및 Physical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향후 긴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공동 연구개발, 국제 공동학위 과정, 인턴십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동연구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방문은 전북대가 세계적 수준의 첨단방산 및 Physical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향후 긴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공동 연구개발, 국제 공동학위 과정, 인턴십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차년도 늘봄학교 강사 연수

전주교육대학교(박병춘 총장)는 '2025년도 전라·제주권-전북특별자치도 2차년도 늘봄학교 강사연수' 심화과정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년도 연수는 2025년 여름과정, 2학기, 겨울과정, 2026년 1학기 봄과정으로 기초과정은 5차, 심화과정은 총 16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초과정은 늘봄학교 강사 기본 역량 함양을 위한 강좌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전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설계 △안전사고 관리 및 지도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공통/선택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저학년과 고학년 2개의 선택 과정으로 구분해 각각 수업 및 평가 운영 전략 등 총 13차시로 운영한다.

또한 심화과정은 7개 분야와 16개 영역의 강좌가 마련됐다. 기본과정(12시간)에서는 관련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 이론 및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학년-고학년 프로그램, 지도안 등의 교육사례를 공유해 연수생들의 배경 지식 함양에 중점을 뒀으며, 고교과정은(12시간) 저경력반-고경력반 탐구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직접 설계해보고 수업시연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연수생의 강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생활 속 청렴 확산

전북대, 1부서 1청렴시책 캠페인 우수부서 선정·포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부서(학과) 1청렴시책' 캠페인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과 함께 양오봉 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제3차 반부패·청렴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1부서(학과) 1청렴시책'은 각 부서와 학과가 한 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정해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분부·부속시설·단과대학 행정실 50개와 학과 82개 등 총 132개 단위가 참여했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점검과 청렴 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가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부서(학과) 1청렴시책' 캠페인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을 선정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은 '연구비는 자유롭게, 연구비는 청렴하게'를 다짐문구로 정하고, 연구 협약이나 연구물품 구매 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주기적 점검과 청렴 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해내 청렴문화 정착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식품영양학과와 스마트팜 학과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기획조정과와 의류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은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 이후 열린 반부패·청렴협의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갑질 예방·공정채용·청렴문화 확산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유해약물로부터 학생건강 지킨다

전북교육청, 30일 '유해약물 예방 수업 페스티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2025 유해약물 예방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 마련되는 이 행사는 교사들의 수업 나눔과 성찰을 통해 보건수업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래형 예방교육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학생 성장 및 발달에 맞는 맞춤형 수업 나눔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교육 모델을 확산시키는데는 계획이다.

행사는 △흡연·음주·마약·카페인 예방 우수 수업을 나누는 '수업 마당'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대안을 탐구하는 '체험 마당'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 '다짐 마당'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전북흡연예방교육연구회, 마약예방교육 교사연수회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북지부, 학생급연지원센터, 전북급연지원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 내실있는 학교 보건교육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재단강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학교 현장에서 쌓아온 유해약물 예방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심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흡연·음주·마약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교육 정책설명회

사립유치원장·학부모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청과 현장이 함께 소통하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유보통합 정책 방향 △무상교육비 지원 조건 등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장들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지침을 전달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무상교육비 지원 배경과 달라지는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계약업무 부패 요인 사전 차단

전북교육청, 계약분야 청렴추진제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2층 강당에서 계약분야 청렴추진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업무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 실천에 목적을 뒀다.

이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는 교육지원청 재정팀 계약업무 담당자, 학교 행정실장 등 청렴 추진체 9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계약분야 반부패 추진체 구성원들은 '비리가 없다'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서로 공감하며, 청렴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렴 특강과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토의·토론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외부 제감도 저해 요인들을 공유하고, 청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 △학교 현장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그룹별 토론을 거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해 냈다. /장은성 기자